

01 교회소식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

새해를 맞아 지역장·조장·구역장들이 헌신예배를 통해 영의 사람으로 신숙히 나올 것을 결단하며 천국 소망 주심에 감사했다.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6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하나님의 마음은 공홀 자재이므로 주 안에 거하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03 기획특집

보석 같은 영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곽의 열두 기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본다.

04 간증

사람의 근본까지 변화시키는 권능

중심의 회개를 통해 영의 마음을 이룬 이상원 장로와 시공 초월한 기도로 태중의 아들이 딸로 바뀐 케냐 소피 성도의 간증.

# 만민뉴스

제620호 2014년 2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 시, 전 세계 무수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영의 일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을 밝히 제시해 주었다(사진 1). 설교에 앞서 헌신자 대표는 '목자의 성'을, 헌신자 전체는 '사역'이라는 곡을 특송하며 헌신을 다짐했다(사진 2, 3). 이날 예배를 통해 헌신자들은 물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영적 사모함이 더해졌다(사진 4).

## “주님 닮은 영적 장수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 2014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

우리 교회는 등록한 성도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구 조직이 있는가 하면, 나이별로 구분된 선교회 조직이 있어 영적 성장과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구 조직은 대대교구, 대교구, 교구, 지역, 조,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2014년 교구 편성은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목사, 전체 심방목사 이종원 목사가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1대대교구(이미경 목사, 조혁희 목사 담당)는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김포시를 아우르며, 2대대교구(조대희 목사, 조수열 목사 담당)는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

파구, 강동구, 광명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을 포함한다.

또한 3대대교구(이미영 목사, 주현권 목사 담당)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로 구성돼 있다. 그 외에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속한 중국교구(황금란 전도사 담당),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로 이뤄진 해외교구(이지영 목사 담당)가 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월 2일, 주일 저녁예배 시 남녀 장년 지역장, 조장, 구역장 헌신예배가 있었다.

이날 남지역장연합회 회장 박흥기 장로, 여지역장연합회 회장 나혜숙 권사, 남조장연합회 회장 신행철 장로, 여조장연합회 회장 이희승 권사, 남구역장연합회 회장 이상원 장로, 여구역장총연합회 회장 차난영 권사를 비롯해 총 1,766명의 헌신자들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대표자 및 전체 특송을 올려드렸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의 사람'(롬 8:6)이라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사명감당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했다.

이 목사는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육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영의 마음을 이뤄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점검할 분야 세 가지, 첫째 선한 생각을 하는가, 둘째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셋째 내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각, 지식의 틀,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교만을 깨뜨리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노력을 통해 사명애 맞는 성결을 이뤄 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저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눅 5:32).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너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중심이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이러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이 ‘긍휼을 통해 맺으신 선한 열매’입니다.

## 2. 생명을 살리는 긍휼의 지혜

### 1)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용서의 긍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 용서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부모나 남편이 핍박할 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핍박하는 상대를 사랑할 수 없고 두려움과 서운함 속에 피하고 싶어집니다. 믿음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선 옳고 당연한 말도, 믿음 없는 남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서로 변론이 일어나며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때 상대가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 2) 영혼을 살리는 징계의 긍휼

용서와 징계는 서로 상반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에 속한 징계는 판단 정죄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죄의 담이 많이 쌓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징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했지요(히 12:6).

어떤 사람은 책망을 피하고자 자기 잘못을 덮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혹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해 버리지요. 그러나 온전히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달리 상대의 허물을 알아 권면을 해야 할 때, 사랑의 권면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으면 실상은 내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찌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르치려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말씀을 인용해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에게 돌아키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깨우쳐 주고 감동을 주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 해 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상대방의 감정 섞인 권면이나 비난을 듣고 낙심해 주저앉아 버리지요.

따라서 상대를 권면하거나 징계할 때는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며, 이런 마음으로 징계했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3)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의 긍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줍니다. 참된 긍휼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18).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며 소외된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긍휼을 베풀면 하나

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눅 6:38).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대상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불법을 행하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한다면 이는 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선한 열매가 가득한 긍휼의 지혜

긍휼이 풍성히 임하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긍휼로 행한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값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또한 긍휼로 행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으로 행하고 인내와 선과 사랑의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모두 우리 안에 맺히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로 인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에 그 긍휼의 열매로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성격이 모난 사람,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잠깐 스치는 생각으로라도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구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도 생명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시키려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었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얻는 모든 열매는 ‘선한 열매’가 되므로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가 가득한 긍휼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긍휼을 통해 맺으신 선한 열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자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율법대로 처리하셨다면 어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마음 또한 긍휼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셨습니다(마 12:20).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죄로 물들어 버린 사람이나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 주셨지요.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던 죄인들에게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부 3:00 PM  
주일 저녁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순교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중·고등부] 9: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첫 번째 기초석  
**'벽옥'**

푸른 빛이 감도는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상징한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버리라', '하지 말라', '하라', '지키라'는 말씀을 행하면 믿음의 반석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한 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른다.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

남색을 띠는 남보석은 '곧음과 절개'를 나타낸다. 진리 안에서 한 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이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다니엘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닌 마음이다. 생명을 잃을지언정 진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초연하면서도 곧고 숭고한 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기초석  
**'옥수'**

반투명한 백색을 띠는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전혀 허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한다. 아무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며 끝까지 불꽃이던 룻처럼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영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내 것을 다 내어 주더라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다.



네 번째 기초석  
**'녹보석'**

녹색을 띠는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하며 '빛의 열매'가 어우러진 빛깔이다. 착하기만 하고 의가 결여될 때는 우유부단하거나 불의와 타협할 수 있다. 또 의만 있고 선이 결여될 때 자칫하면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게 돼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기 쉽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치중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착함과 의로움이 어우러지고 사랑 속에 행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곽의 주춧돌

**열두 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

◆ ◆ ◆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였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계 21:19~20)



다섯 번째 기초석  
**'홍마노'**

붉은 줄무늬의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충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충성해 온 집에 충성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의로운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있는 만큼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 마음을 쓸 수 있기에 '온 집에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善)한 마음이 더해져야 한다.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

올리브 빛의 황옥은 '자비(慈悲)'를 나타낸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다.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포근히 감싸 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을 볼 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밍지 않은 것이다.



여섯 번째 기초석  
**'홍보석'**

투명하고 맑으며 진한 붉은 색을 띠는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희생도 무릅쓰며,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덟 번째 기초석  
**'녹옥'**

바다의 물빛을 연상할 수 있는 녹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이다. 이는 억지로 힘들게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해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 없는 참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큰 역경을 만나도 참아내며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끝까지 인내한다. 이렇게 오래 참아서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이기에 아주 깊고 오묘한 빛을 낸다.



아홉 번째 기초석  
**'담황옥'**

붉은 오렌지 색의 투명한 담황옥은 '양선(良善)'을 나타낸다. '성령 안에서 선(善)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양선이 임했다고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들레거나 부딪치지 않는다. 또한 악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꺾어 버리려 하지 않을 때라야 온화하고 따뜻한 빛이 난다.



열 번째 기초석  
**'비취옥'**

반투명의 청록색 빛이 나는 비취옥은 '절제'를 상징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절제를 좇아 절제가 이뤄져야 하며, 기쁨도 사랑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다.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해도 절제를 통해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든 진리로 분별하고 매사에 절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야 온전하다. 철저히 절제된 삶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에 해당된다.



열한 번째 기초석  
**'청옥'**

청색을 띠는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한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로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낸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받는 일이 없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면 마음이 상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자꾸 보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어지시기 때문이다.



열두 번째 기초석  
**'자정'**

보랏빛을 내는 투명한 자정은 '온유'를 나타낸다. 성격이 온화하고 숨털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마음이므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는 너그러운 마음이며 이 마음이 말과 행함으로 나타날 때 '덕(德)'이 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따뜻함과 쉼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상원 장로 (2대대 11교구, 47세)

# “생명의 말씀과 목자의 사랑으로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함께 타고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가 만민중앙교회 부흥성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997년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5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내는 저녁 6시쯤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밤 12시쯤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예배가 밤 11시가 넘도록 이어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쯤, 2살 된 딸을 안고 집을 나섰지요. 만민중앙교회에 도착하니 감사 이재록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 저는 이날 이후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여 부흥성회에 참석하며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 부흥성회가 끝나자 아침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사찰반을 도와 성전을 청소하고 오후 1시경 집에 돌아갔지요. 오후에 강의를 준비해 학원에 출근하기를 3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오전 강의가 생겨 더 이상 성전 청소를 할 수 없었지요.

이후 저는 출퇴근길에 설교 테이프를 들고 또 들으며, 깨우침이 오면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학원 강의를 너무 늦게 끝나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못하는 날에도 꼭 성전에 들러 개인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곤 했지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할 때에도 설교 테이프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차츰 목자에 대해 신뢰가 쌓여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황준하 장로님이 담당하던 신학교 영어 강의를 듣게 됐고, 이를 계기로 1998년 8월부터 교회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번역국에서 일하게 됐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해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이었기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번역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차츰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의 일만 하는 상황이 됐지요.

결국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예배 시간에도 졸음과 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업무를 통해 말씀은 아는데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강경한 주장 때문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도 했지요. 이것이 얼마나 성전 안에서 합당치 않은 죄인지 모른 채, 오히려 합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분명히 말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옳은 줄로 여겼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본격적인 영의 흐름 가운데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친히 온몸으로 그 값을 치러 주시는 당회장의 생명 다한 사랑을 지켜본 것이지요. 저 또한 이러한 사랑을 깨우치며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교회 직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할례하지 못한 제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자 몸부림치며 변화시켜 갔지요. 그 결과 하나님 은혜와 목자의 사랑으로 2013년 12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제단의 장로서, 남구역장연합회 회장과 번역국 팀장을 맡아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축복을 주셔서 외동딸 한빈 자매는 영의 마음을 이루고 1청년선교회 부회장으로, 아내 홍정렬 집사는 만민선교원 교사와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충성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소피 아치엠 성도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 “시공 초월한 기도로 태중의 아들이 딸로 바뀌었어요”

저는 올해 27세이며,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담임 정명호 목사)에서 찬양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저는 쏘스틴 성도와 결혼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임신 7주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고, 6월과 10월에는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임신 9개월째인 12월 3일 검사 결과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9남 1녀로, 딸이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아들보다 딸 낳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올해 1월 5일, 정명호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에 관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미 창조

된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는 놀라운 역사이지요. 이때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로 태중의 아들이 딸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오던 중, 1월 17일 금요일아 예배 때 녹화된 만민매거진 상영을 통해 당회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아들이 딸로 바뀌었음을 온전히 믿었지요.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아기를 출산했는데 과연 3.6kg의 건강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해 재창조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명동 168(부암동)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2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1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1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1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1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실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자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1528-3830,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